



이 미 연

『학력사항』

- 조지타운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
-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
-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공사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무역투자위원회 서비그룹 의장
-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 과장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기획과 과장
-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 세계무역기구 WTO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
-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 1등서기관
-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사무관
- 1993년도 제27회 외무고등고시 합격(3등)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자신의 목표와 꿈을 갖고 있다. 모진 世風에 쫓기다 보면 그 꿈은 바래고 꺾이는 경우도 생긴다. 청년기 때 확실한 꿈을 設定하지 못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나는 대학시절을 한국에서 보내면서 많은 방황과 좌절을 겪기도 하였으며, 卒業에 즈음에서까지도 나의 꿈을 갖지 못했었다.

그 때 나는 한쪽으로 밀어났던 먼지 덮인 성경책을 다시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였다. 그 때 내 눈에 토인 것은 요셉의 꿈 이야기였다. 꿈쟁이 요셉. 그는 형과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그것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고, 옥살이를 하며 고난 중에 청년기를 보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꿈을 지키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 결국은 왕의 눈에 띄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나에게 용기를 갖게 한 것은 꿈을 잃지 않았던 요셉이었다. 우리는 꿈을 먹고 사는 動物이다. 未來를 꿈꾸고 그 꿈을 實現시키고자 계획하고 노력하며 결국은 그 꿈을 성취시키는 데서 비로소 人間으로 태어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나의 대학생활과 外務高等考試를 준비한 총 7년 동안의 청년기의 방황과, 自

己와의 鬪爭은 外務高等考試 합격이라는 꿈의 열매를 맺게 됨으로써 일단락 지어진 듯하다. 이번 시험의 합격의 榮光을 예수님께 돌린다. 나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나에게 最善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고시공부를 하는 친구들과 후배들, 특히 외교관 2세를 꿈꾸는 이들, 女性으로서 外務高等考試에 도전하려는 이들, 시험의 不合格의 고배를 마시고 방황하며 자기의 꿈을 찾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비록 達筆은 아니지만, 이 글을 바친다.

미약하나마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I. 해외에서의 유년시절

1968년 2월 6일에 태어난 나는 외교관이신 아버지(이창호, 前주이스라엘 대사)를 따라 4살 때 미국 워싱턴에서 1학년까지 생활한 것으로 나의 첫 외국생활은 시작되었다. 어린 나이에 생소한 미국생활이 적응하기 힘들었던가 보다. 밤이면 소스라치게 놀라 깨기도 하고 잠결에 일어나 집을 걸어 다니기도 하였다. 국민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아프리카 코트디브와르에서 2년, 미국 오하이주 톨레도(Tolledo)의 이모님 댁에서 1년을 보내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경기여자고등학교로 편입한 뒤로 즐곤 한국에서 생활하였다.

외교관 자녀로서 나의 생활은 變化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의 연속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고생된 것은 잊고 추억만 남는가 보다. 아프리카에서 전기가 안 들어와 흔들리는 촛불 아래 공부하던 일, 매일 말라리아 약을

먹으며 말라리아에 걸려 죽은 아이들 이야기에 무서워하던 일, 길고 긴 雨期에 햇빛이 너무나 보고 싶어 안달하던 일... 그 기억이 새롭다.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그곳의 풍물을 배우려고 아프리카 토속춤도 배우고 음식도 만들어 보고 전래동화도 읽곤 했는데, 외교관이 되어 아프리카에 가기를 꺼리는 수험생들이 있는 것이 무척 섭섭하다.

외교관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자녀교육 문제인 것 같다. 3년 단위로 해외와 국내를 순환근무하다 보면 교육에 소홀해 진다. 외교관 자녀들은 외국에서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귀국하여 한국의 폐쇄적 사고방식, 과중한 학업량, 억압적인 학교분위기를 견디지 못하여 해외에 남거나 유학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역시 국제화·개방화에 맞춰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내가 外務高等考試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학교, 중학교 때 6년간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점,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대학시험 공부를 하며 한국식 교육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II. 대학교 생활

나는 정원의 시험(특례입학)을 보고 1986년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 입학하였다. 정원의 시험은 서울대학교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국사를 본고사처럼 주관식으로 본다. 출제위원의 재량에 따라 매년 바뀌는데 나는 국어는 본고사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였고, 고

문에서도 출제되었다. 영어는 TOEFL 형식으로 나오며 수학은 정석을 3~4번 보았다. 고등학교 때에도 大學生活에 적응하지 못할까 봐 모의·중간·기말고사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학급에서 1, 2등을 유지하긴 하였지만, 大學生活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남보다 두배로 노력해야 했고, 한국적 사고방식에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 외국에서 대학을 다닐 걸 하는 후회도 많이 했었다.

평소 부모님께서는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정체성을 갖도록 교육하셨는데, 이러한 가정교육이 나로 하여금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으로 남도록 한 것 같다.

그 해 5월 아버지께서 미국 UN대표부로 부임하시어 외교관자녀 기숙사에서 大學 4년을 보냈다. 나로 하여금 한국사회에 눈뜨게 한 것은 大學新聞社에서 기자로서 활동한 것이다. 사회과학서적도 많이 읽었고, 집회에 나가고, 구로동에서 여성노동자도 만나 보기도 하고, 6·10 시민대행진 때도 광화문에 나가 민주화를 갈구하는 서울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폭넓은 사회과학적 기초와 한국사회에 대한 사실인식을 기초로 세계와 한국을 분석하고 자기 나름의 비판의식을 갖추게 된 것이 이후 外務高等考試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열정을 가지고 한국의 장래를 진정 걱정하고, 조국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은 대학생들, 청년들의 특권이 아닐까?

그러나 4학년이 되고 졸업 후의 진로를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내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더 이상 대학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기성세대에 불만이나 토로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장래를 진정 걱정하고 한국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면, 구호나 외치며

불만을 쏟지 말고, 직접 국가정책을 遂行하는 일에 參與하라,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소시민으로 남아 사회의 기존체제에 아주해 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시며 외교관이 되어 보라고 권하셨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4학년 2학기를 졸업논문준비에 바빠 外務高等考試는 뒤로 미루어졌다. 내가 과연 한국에서 줄곧 공부한 사람들도 떨어지는 考試에 합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두려움도 컸다. 관련과목을 수강한 적도 없고, 외국어도 꾸준히 준비해 두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정치외교학과 학생도 아니다.

그 때 다행히도 아버지께서 귀국하시어 1990년 2월 나는 기숙사를 나와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적극적인 권유와 격려 속에서 일단 공부를 시작하였다.

Ⅲ. 고시공부의 시작

199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으나 3년 동안의 훈련을 거쳐 外務高等考試에 합격한 셈이다. 사실 이것은 모험이었다.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중·고등학교 때 배운 불어 대신 중국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내가 해외생활의 경험을 살려 훌륭히 외교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셨고 어머니도 여성으로서 자신 있게 사회참여를 통해 자기 몫을 다하라고 용기를 주셨다.

1990년 상반기에는 학교에서 國際法, 經濟學 등을 청강하고 압구정동에 있는 中韓外國語學院에서 中國語를 배웠다. 학교도서관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로부터 정보도 얻을 수 있

었다. 하반기부터는 1차시험에 집중했다.

1991년 1월 제25회 外務高等考試 1차시험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뻐는지! 그 때 갑자기 50명을 뽑게 되어 1차합격자 수도 194명으로 증가되었는데 나는 헌법 97.5점, 영어 95점, 정치학 80점, 문화사 85점, 국사 85점 좋은 점수를 받았다. 기본서를 두 번씩 읽고 문제집도 2권씩 각각 3~4번 정도 본 덕분이었다. 나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눈오는 추운 겨울, 2차시험을 끝까지 보고 어영부영 지내다 보니 벌써 5월이 되었다. 그 전해에 국제법, 경제학 서적을 두 번씩 보았지만, 막상 공부를 하려니 기억이 가물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학교 청강, 학원 강의, Tape, 그룹스터디 등을 통해 시험에 대비하였지만, 경험과 정보부족으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

1991년 상반기에는 미시·거시경제학을 태학관 학원강의를 들으며 익혔고, 국제경제학은 김인준 저 「국제경제론」과 D. Salvatore의 「국제경제학」을 읽었다. 이해수준은 넘지 못했다. 국제법은 법대를 졸업한 이충면, 이진우, 이재민과 스터디를 할 수 있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만, 이한기 저 「국제법강의」를 텍스트로 하였기 때문에 따로 이충범 등저 「국제법신강」을 보는 등 혼란을 겪었다.

여름에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외교사 국제정치학 스터디를 위해 학교에 갔는데 外交史는 오기평, 김용구 교수의 「세계외교사」를 모두 보았다. 국제정치학은 범위가 방대하고 시중에 나온 책도 다양하여 공부하기 까다로웠다. 김순규 저 「신국제정치론」을 보면서 박상식 「국제정치학」,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이호재 역 한스모젠스의 「Politics Among

Nations」등을 읽어 보충했지만 썩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8월이 되어서야 겨우 전과목을 한번씩 훑었지만, 단권화하지도 못하였고, 정신적으로도 지쳐 공부에 심한 회의를 겪었다. 나 자신이 초라해 보였고, 아버지, 어머니의 격려도 부담이 되었다. 어서 빨리 시간이 지나 이 지겨운 考試와 작별하고 싶을 뿐….

강제성을 부과하려고 7, 8월에는 토요일마다 파고다학원에서 영어작문을 수강했고, 8, 9월에는 동방고시학원에서 행정학 강의를 들었다. 일단 공부나 하고 고민은 뒤에 하자는 억지였다. 10월부터 학교도서관에 나갔지만 아침의 자리투쟁, 가방분실사건, 지지부진한 공부 등이 나를 짜증나게 했다.

내가 과연 여성외교관으로서 활동할 확고한 꿈과 의지를 갖고 있었는가? 타의에 의한 결정은 아니었나? 꿈이 없는 노력은 허무감만을 줄 뿐, 피로만 쌓였다. 공부량도 7시간을 겨우 넘겼다.

12월말 나는 근처 교회의 부흥회에 참석했다. 하나님께 정신적 위안을 얻고 싶었고, 정말 외교관이 나의 꿈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부흥회 마지막 날 목사님은 참석한 교인들에게 한두 가지 절실히 원하는 것을 정해 70일간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매일 밤 12시 정각에 찬송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外務高等考試 합격을 위해 기도하였다. 시편을 읽으면서 내 마음도 평안해지기 시작했다.

시험이 가까와지면서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하루하루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1992년 1월 20일의 일기)

공부하는 틈틈이 나는 교회 목사님이 전해 주신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읽다가 단거리 선수와 장거리 선수의 이야기를 읽고 큰 용기를 얻었다. 단거리 경주에서 단거리 선수는 이겼지만, 장거리 경주에서는 졌다. 왜?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경주를 마치기 전에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시작할 때 아무리 1등을 쫓다 하더라도 끝까지 시합을 마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경주를 끝낼 때까지 시합을 마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경주를 끝낼 때까지 지속적인 보조로 뛰어내야 한다. 그리고 훌륭한 주자는 경주의 마지막 코스에 가장 빠른 속도로 끝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운동선수의 능력은 그것이 적당한 인내와 합쳐지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물론 고시공부를 하나의 장거리 경주로 본다면, 나는 자신 었다. 그러나 더 넓게 본다면 나는 고시라는 단거리 경주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人生의 장거리 경주를 달린다. 혹시나 조금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속도만 내려 하는 것은 아닐까? 장거리 경주를 뛰기 위해서 나는 확고한 人生의 동기를 갖고 인내로 무장하고, 그 위에 지적 성장이 조화되어야 하는데 고시는 내 전체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며 더 먼 미래의 지속적 발전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2월 19일 시험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정신적 방황과 시행착오로 준비가 안전하다 할 수

는 없었지만, 나는 내가 준비한 한도 내에서 최선이 답안을 작성하려고 노력하였다. 마음은 바람없는 호수처럼, 아상하리 만큼 평안했다.

시험이 끝나고 나는 잘 봤다고 생각했다. 합격의 기대도 걸어 봤다. 그러나 실제 내가 잘 썼다고 믿었던 자신감은 그 당시 많은 수험생들이 갖고 있었다. 국민윤리의 남북한 통일정책비교, 경제학의 시장실패이론, 국제법의 남극의 국제법상 지위,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조약의 留保, 국제정치학의 로카르노조약 등은 누구나 다 예상하고 준비한 문제였던 것이다.

시험발표는 3월 25일, 나는 24일 내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다. 앞이 캄캄했다. 엉엉 울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음 날 하루종일 금식하며 응답을 듣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에게 보여 주셨던 그 평안의 의미는 무엇이었던가? 허탈하고 착잡한 기분으로 또 하루를 보냈다.

마음이 조금 평정되어지자 어머니께서 나에게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외무고시 공부를 도와 주셨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만약 이대로 중단한다면 그 동안의 기도가 다 헛되어 버리지 않겠느냐고 하시며 재도전 해 보려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다. 사실 2년 동안 합격하기를 바란 것도 무모한 것이었다. 또 요셉의 꿈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동안 나의 외무고시를 임하는 자세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셨다.

결정을 미룬 채 기분점환 겸, 시내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사무실에서 전화하셨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얼굴이 상기되어 나에게 오셨다. “다시 해야겠다. 0.19

점 차이로 떨어졌다고 하신다. 중국어가 49점이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니? 하나님께서 1년간 더 완벽히 공부하라고 떨어지게 하셨나보다.” 국민윤리 70점, 국제법 59.33점, 경제학 60점, 국제정치 53.33점, 중국어 49점, 행정학 60점, 지금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갑자기 내 머리가 맑아졌다.

나는 즉시 종로서적에 가서 고시계사에서 출간한 「외무고시 가이드」를 샀다. 저녁에 나는 내 책상에 앉아 실패원인을 분석하여 보았다.

- (1) 독서실, 도서관, 집을 오가며 공부하느라 절대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점
- (2) 행정대학원 시험준비와 낙방의 후유증
- (3) 외무고시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
- (4) 전반적으로 모든 시험에서 작은 문제를 하나씩 엉성하게, 기억을 겨우 되살려 썼던 점-시험운이 따라준다면 2년 안에도 합격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보다. 국제법은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를 예상하지 못하였고, 경제학은 Tobin의 자산선택이론을 시간부족으로 1장 반만 쓰고 나왔다. 국제정치학은 국제체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시각이 빗나갔다. 행정학도 작은 문제인 행정위원회와 특별회계에 대해 1장 반씩 밖에 쓰지 못했다. 중국어는 난이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불어, 독어를 선택한 수험생들 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아무리 다른 문제를 완벽하게 쓴다 하더라도 작은 문제 하나라도 놓치면 점수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 (5)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外交官이 되겠다는 목적위식이 뚜렷하지 못하고 방황했었던 점에 나의 실패원인이 있었다.

시험에 떨어진 것에 대해 그만 억울해 하고 그만 원통해 하자.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자. 계획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인도도 못해 주시니까. 지금 당장은 고달프고 속상하지만 이것이 훗날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되리라. 더 큰 뜻이 있길래 내 뜻, 내 계획대로 뇌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主權下에 두시는 것이다. 불평도 말고 부끄러워 하지도 말자.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께 나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다.

(1992년 4월 6일의 일기)

VI. 새출발-동시합격전략

나는 동시합격을 目標로 4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나에게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외무고시는 1차와 2차 시험간 간격이 좁기 때문에 동시합격이 힘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나는 Schedule Note Book에 두 달분의 계획을 세워나갔고 매일의 공부량·공부내용을 점검했다. 3차시험 합격발표 후 제26회 시험에 합격한 이충면氏의 소개로 동시합격한 김병연氏를 만났다. 1차시험이 끝나자마자 2차준비를 시작하여 모든 내용을 다 훑어볼 수 있도록 모든 과목에서 sub-note를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충고해 준 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경제학과 국제법은 특히 sub-note를 3~4번씩 새로 만들고 수정·보완했었는데, 보는 공부가 아니라 쓰는 공부가 지루함도 덜해 주고 자기 것으로 지식을 소화시키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1. 상반기 - 2차시험 공부에 집중

(1) 4월~6월

4월, 5월에는 외국어에 집중투자를 하였다. 시험이 가까워오면 외국어를 공부하기 힘들어지므로 초반기에 집중투자하고 후반기에는 매일 2시간씩 시간배정을 하였다.

(2) 7월~9월 초

이 기간중에는 시작해 놓은 sub-note를 완성하고 누락부분을 보완하였다. 늦기 전에 가서 새로 출판된 책을 점검하여 구입하고 모범답안도 복사해 두며,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계간 思想誌를 꾸준히 사서 읽고 한길사 간행 조지 세이빈 「정치사상가 1·2」, 김하룡 저 「中國政治論」을 읽었다. 시험 그 자체를 위한 공부가 아닌 지적 성장을 위해서도 그리 하였다.

2. 중반기-1차시험과 2차시험의 병행

(1) 9월 중순~11월 중순

이때부터 1차·2차시험공부에 50%씩 할당하여 병행하였다. 아직은 2차시험을 주로하면서 1차시험 공부는 2차시험 과목과 연결하여 상호보완적으로 공부하였는데, 1차시험을 이미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서보다 문제집 위주로 공부했다.

(2) 11월중순~12월末 1차 본격 시작

그러나 2차공부를 완전히 중단해서는 안되고 외국어도 꾸준히 2시간씩 배정하였다. 1차·2차 각각 80%, 20%(외국어 제외)로 공부량을 배정한다. 그 동안 평균 8시간 정도 공부하던 것을 10시간으로 늘린다.

사실 나의 체력은 이 시기에 한계에 도달한 듯 했다. 소화기능도 가동이 정지되기 직전인 듯, 조금만 많이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아 번비로 고생했다. 그래서 침을 맞고 한약을 먹으면서 4시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공부 는 집에서만 했는데 어머니는 나 때문에 또다시 '시집살이'를 하신 셈이다. 남자도 마찬가지로 지이겠지만, 여자가 고시공부를 하려면 가족 모두의 물질적·정신적 원조가 필요한 것 같다. 자기 전에 성경묵상을 하면서 나는 겸손하라,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말씀만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은 나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1년의 훈련과정을 주신 것이다.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후 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20여년의 훈련을 받았다. 쫓기는 생활 속에서 동굴에 숨어 배고프고 쓰라린 경험을 했다. 나에게도 이처럼 귀중한 경험을 하도록 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3. 하반기

(1) 1월-1차시험 공부에 전력투구

1월 30일로 1차시험 날짜가 정해졌다. 1차 시험 공부를 늦게 시작하지 않았으나 불안했었는데 시험이 1월말로 정해져서 무척 다행이었다. 세 번째의 1차과목 시험공부에 들어갔다.

그런데 시험보기 이틀 전 나는 심한 감기몸살에 걸려 버렸다. 밤에 시작된 고열로 두통을 앓더니 기침이 그치지 않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한밤중, 나는 압담한 기분이 들었다. 눈물이 났다. 하나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 버리는 겁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영영 울며 기도했다. 머리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 때 미국에 있는 사촌 sonya가 보내

온 편지의 한 구절이 생각났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성경 구절을 나는 의과대학 시험을 준비하면서 읽고 힘을 얻었어…”

그렇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친다해도 결국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28일, 하루종일 누워서 주사맞고 약먹고 약몽에 시달렸다. 땀을 흠뻑 흘리고 나서는 저녁부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29일 아침, 주사를 맞고 와서 나는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이 귀중한 시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고 새벽 2시까지 국사 문제집을 보고 다시 6시에 일어나서 마저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2) 2월-2차시험 준비에 총매진

2월 1일(월)부터 1차시험은 잊어버리고 남은 3주간 2차시험 공부에만 전념하였다. 일주일에 두 과목씩 이해위주의 과목과 늦게 보는 과목부터 공부해 나갔다.

첫 주 : 행정학, 국민윤리

둘째 주 : 거시·국제경제학, 국제정치학

셋째 주 : 외교사, 미시경제학, 국제법,

중국어, 영어도 매일1시간 반씩

올해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11시간씩 공부하였는데, 마음의 동요없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덕분이었다.

2월 17일 1차 시험 합격소식을 들었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도모를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기를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

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자기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리로다...”(시편 20장)

1차 합격소식을 들었다. 이 말씀 오늘 내게 와닿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1993년 2월 17일의 일기)

나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믿는다. 3년 동안 아니 내가 25년 평생 동안 구하던 꿈에 대한 응답이었다.

20일(토요일)부터 시작된 2차시험은 수요일에 끝났다. 쓰러질 것을 각오하고 내 온 힘을 다 쏟아부었다.

3월 26일 저녁 2차시험 합격소식을 들었다. 드디어 해냈구나, 나중에 알아보니 1차 시험 점수는 헌법 72.5점, 영어 85.0점, 국사 70.0점, 정치학 82.5점, 문화사 85.0점으로 146명 중 4등을 했고, 2차시험은 국민윤리 65.66점, 영어 60.66점, 국제법 59.0점, 경제학 78.66점, 국제정치학 68.0점, 중국어 66.0점, 행정학 55.0점으로 평균 64.71점, 30명 중 3등을 하였다.

나는 내가 합격한 것이 기적같다.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힘으로 했고 부모님의 보살핌, 교회 어른들의 기도, 친구들의 끊임없는 격려 덕분이었다. 작년 행정학 큰 문제로 나온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이 국민윤리에서 출제되고 경제학에서는 작년에 나온 ‘시장실패론’이 ‘공해문제’로 다시 출제되는 등 시험운도 작용한 것 같다. 그러나 내 개인적 의견으로는 2

차시험을 두 번 떨어지고 나서 다시 1차시험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개인에게서나 국가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생각된다. 1차시험 점수가 3~4년까지는 유효해야 할 것 같다. 2차시험에 떨어지고 군대에 가게 된 친구, 후배들을 생각하면 내 합격이 너무나 미안하기만 하다.

외교관 자녀이기에 넘어서야 할 많은 장애물도 있었고, 여성으로서 외교직을 선택한다는 점에서도 많은 갈등을 겪기도 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수행해야 할 난관도 많으리라

예상한다. 그러나 외교관으로서 국가의 발전과 이익에 공헌하리라는 굳은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며 나의 꿈을 잃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주실 여러 훈련과정도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P.S. 내가 외무고시공부를 시작한 후 나온 「외무고시가이드」(고시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동차합격전략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여 불만이 컸었다. 나의 이 글이 동차합격의 계획을 갖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